

# 전북권공항 건설 추진... 무안과 경쟁 불가피

###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 "의견수렴 후 입지 논의" 새만금·김제 공항부지·화포지구 등 후보지 3곳 국제선 취항시 전남지역 공항 적자폭 증가 우려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가 전북권 공항 건설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나 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등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 항공 수요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공항이 호남에 들어서면 전남의 무안공항과의 살을 깎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안공항 건설 과정에 충남 이남의 수요까지 고려해 건설된 만큼 호남권의 새공항 건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권 공항 건설 가시화=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전북권공항과 단

순산업, 문화관광 재단 등 이른바 전북 3대 현안사업을 발표했다. 송하진 당선인은 지난 13일 열린 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나 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등 3곳 후보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전북도가 전북권공항 대안으로 추진해온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가능성부터 명확하게 한 뒤, 새로운 입지를 논의하는 게 옳다"면서 "이후 도민들과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올 하반기부터 수립할 계획이며, 전북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항공수요도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북권공항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난 1999년 김제시 백산·공덕면 일대(154ha)에 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2004년 감사원이 항공 수요가 부족이라며 착공 시기를 재조정하도록 한 이후 전면 백지화됐다. 또 미국 공군이 소유한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띄우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대체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무안공항과 경쟁 불가피=전북권공항 건설은 꾸준히 국제선 여객이 늘고 있는 무안공항, 광주공항으로서는 달갑잖은 소식이다. 수요가 겹치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은 지난 2007년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개항했다. 무안공항은 광주 등 충남 일부 지역과 호남권 등지의 여객이 주고객이다. 전남도가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추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호남고속철을 타고 충남을 비롯해 수도권의 수요까지 무안공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또 무안공항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중국권 관광객도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전북권공항이 들어서면 무안공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전남지역 공항들의 적자 폭도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무안공항의 적자는 2010년 69억2900만원 적자에서 2011년 78억5100만원, 지난해 79억2100만원으로 매년 적자가 허덕이고 있다. 또 광주공항의 적자는 2012년 20억7400만원이었고, 여수공항도 같은 해 82억1200만원에 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다음달 11일 개장하는 변산해수욕장.

## 전북 해수욕장 20일부터 일제히 개장

전북도내 해수욕장이 오는 20일 부안 모항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잇따라 개장한다. 7월 3일에는 수백년 된 소나무숲이 장관을 이루는 고창 동호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4일에는 '명사십리'로 유명한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받기 시작한다. 5일에는 부안의 격포해수욕장과 고사포 해수욕장이 운영에 들어가며, 11일에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과 부안 변산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이들 해수욕장은 낙조가 아름답고 물이 깊지 않은데다 주변에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을 끼고 있어 인기가 높다. 전북도는 피서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등을 보수하고 해수욕장 진입로와 배사장도 정비할 계획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블랙커런트' 순창의 새로운 소득작물 부상

### 〈베리의 일종〉 전국 최초 시범 재배단지 조성 안토시아닌 함량 블루베리 4배



순창군이 기능성 베리인 '블랙커런트' <사진>을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한다. 순창군은 올해 유등면을 중심으로 '블랙커런트' 시범 재배단지(7ha)를 전국 최초로 조성, 적응성을 시험하고 있다. '베리의 왕'이라고 불리는 블랙커런트는 베리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 4배 이상 높고 비타민C, 폴리페놀 함량도 다른 베리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돼 있어 서구에서는 19세기부터 어린이 건강식과 눈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항산화 화장품과 주스·

젤·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본격적으로 수확에 들어간 '블랙커런트' 판매를 위해 행정과 농업, 농가를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물이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농업기술센터는 '블랙커런트' 성분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수확한 열매는 피부건강연구소에서 항산화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해 사

용되며, 일부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기능성 화장품 업체인 (주)에이팜이 현지를 방문해 첫 구매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납품을 희망했다. 또한 병원 임상실험 및 백화점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농가 고소득 작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군 유등면 남민희 농업인 상담소장은 "블랙커런트가 처음이라 재배에 어려움은 많았으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농가 소득작물로 기대가 된다"면서 "재배 면적을 더욱 확대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사전예고 집중단속'

### 8월31일까지 취사·흡연 등 행위, 흡연행위 등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적발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운석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은 "내장산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며 "건전한 탐방 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은 사전에 흡연 금지 또는 유선(063-538-7875)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어린 검은머리물떼새의 사냥. 멸종위기종 II 급이자 천연기념물 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이 변산반도국립공원내 하섬 갯벌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이번에 관찰된 새끼새가 부화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발육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이면 성조(成鳥)로 날갯짓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창작판소리 '김주열 열사가' 오늘 남원 광한루 누각서 공연

### 90분간 출생과 성장 등 담아 시립국악단 이난초 명창 참여

창작판소리 '김주열 열사가' 공연이 17일 오후 4시 남원시 광한루 누각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강경식)가 민주화대장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4번째 도시 순회공연이다. '김주열 열사가'는 지난 2010년 열사 50주기 추모에 맞춰 제작된 열사의 대한 추모의 마음이 담긴 창작 판소리이다. 출연진은 남원 시립국악단 이난초 명창을 비롯한 6명으로 구성됐고 시대적 상황과 열사의 출생과 성장, 3·15와 열사의 죽음, 4·19

혁명과 민주화의 결말 등 내용으로 90분간 공연된다.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남원시의 지원을 받아 열사의 민주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동서화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동서화합 김주열 민주성화봉송 대장정과 함께 다큐멘터리 '민주햇빛 김주열'

을 제작했고, 열사 50주기인 2010년에는 '민주 국민장'으로 추모행사를 가진 바 있다. 남원시 역시 열사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자 열사묘역 주변 부지를 매입, 올해 사업비 국비 9억원을 확보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박기섭기자 bs8787@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권/층/업/종

- 1층 금용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조트룸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뉴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유틸리티센터 등

## 나주혁신도시 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학회사(아시아신택) 보증으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분양 인더문의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시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빛가람동 주민센터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사업지 및 분양사무실 중앙호수공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